⊙ 濟州島硏究, 제 3 집, 1986. ⊙

濟州島 地方에 나타난 Altai語彙 要素考

——特히 地名과 馬匹名에 대하여——

朴 相 圭*

Ⅰ. 緖 言

참으로 irony한 일이다. 筆者가 처음 Ural-Altai學에 關心을 갖었을 때도 많은 주위 사람들은 實用性이 없는 學問이다. 또는 뜬구름 잡는 學問이다. 또는 그 地域은 共產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資料面이나 文獻面이 부족해서 硏究進行過程이 미흡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었다. 그러나 워낙 筆者는 愚直한 性格을 가졌는지라 이런 事項을 묵고하고서 이 方面에 뜻을 두게 되었다. 그러니까 직접 현지답사는 커녕 문헌의 빈곤속에서 Ural-Altai學을 하게 된 셈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또 다시 내 일생에 한번도 가 보지 못한 濟州島에 대한 論文을 쓰게 되었으니 참으로 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地名에 關한 것이니까 더욱 그렇다.

그러나 筆者는 부족하나마 최대의 노력을 가지고 많은 문헌을 통해서 이번에 濟州島地名과 馬匹名에 대하여 알타이語的인 입장에서 本稿를 쓰게 된 것이다. 이점을 濟州島 양반들께 먼저 말씀드리는 바이다. 잘못된 점이 만약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筆者의 잘못으로 돌리고 싶다. 아뭏든 이 기회를 통해서 濟州島의 現在 地名을 Altai語的인 觀點에서 다시 解析함을 本攷의 主目的으로 삼는다. 이런 생각들이 모여져서 濟州島의 民俗, 言語 등의 여러 방면에 Altai的인 색채를 갖고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 曉園工業專門大學. 알타이語學 專攻

Altai學的인 面에서 앞으로는 濟州島를 體系的으로 硏究해야 할 단계에 왔다고 보는 것이다.

Ⅱ. 濟州島의 沿革과 特性

1. 沿 革

現在 濟州道 行政區域은 남제주군, 북제주군, 서귀포시, 제주시로 크게 나뉘며 다시 남제주군은 3개의 읍, 2개의 면, 3개의 출장소수 그리고 50개 동이 있으며, 북제주군은 3개의 읍, 3개의 면, 5개의 출장소수 그리고 81개 동이 있으며, 서귀포시는 22개 동이 있으며 또한 제주시는 40개의 동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濟州島는 본래 耽羅國, 耽羅, 毛羅, 耽牟羅라 하였으며, 아득히 먼 옛날 한라산 北麓 毛興穴이라는 곳에서 高乙那, 良乙那, 夫乙那의 세 神人이 태어나서 그들은 三姓穴을 떠나 동쪽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한 집단이었는 데 마침내는 성산면 온평리의 婚姻池에 이르러 碧浪國에서 온 세 선녀를 맞아서 결혼을 했다. 이렇게 해서 濟州島는 시작되었다고들 한다.[1]

2. 特 性

濟州島의 特性은 여러가지로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한국에서 제일 큰 섬이라는 것이며
둘째는 바람 돌 여자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보다도 本稿에 해당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特性은 셋째번이다.

셋째「高麗 第24代 원종 11년(1270年)에 金通精이 三別抄를 거느리고 진도에 웅거하였다가, 그 이듬해에 침입하여 웅거하므로 성주 高仁祖와 왕자 文昌祐가 조정에 알린지 3년이 되는, 같은 14년(1273) 2월에 金方慶을 보내어 원나라 군사와 함

1) 한글학회. (한글학회 지은) 한국지명총람 16.(전남편·제주편) Ⅳ, 한글학회 pp. 345-346을 참조하기 바람.

깨 쳐서 평정하였는데 그 해 윤유월에 원나라에서 達魯花赤總管府를 설치하였으며, 第25代 충렬왕 원년(1275)에 원나라에서 다시 탐라로 하고, 그 이듬해에 軍民總管府를 설치하고, 또 그 다음해(1227에) 東西阿幕을 세우고 소, 말, 약대, 나귀들을 놓아 먹이고 달로화치를 보내어 감독하다가, 같은 10년(1284)에 원나라에서 총관부를 혁파하고 耽羅郡民按撫使를 두었는데, 같은 20년(1294)에 왕이 원나라에 들어가 교섭한 끝에 탐라를 돌려 받고 성주와 왕자에게 선물을 주었으며……[2]」

위와 같은 귀절에서 우리는 濟州島와 蒙古와의 關係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꼭 歷史的인 事實을 들춰내지 않더라도 우리는 蒙古와 韓國과의 關係 特히 蒙古와 濟州島와의 關係는 오랫동안 유지 발전하였다고 보고 있으며, 蒙古族의 많은 軍人들이 직접 제주도에서 직접적으로 제주도 사람들과 생활을 하였음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터이다.

事實上 高麗朝가 蒙古의 지배하에서 많은 文化的인 關係가 주고 받고하면서 많은 영향을 우리가 받았으리라고 생각되며 특히 제주도의 경우는 더욱 더 그러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 많은 影響가운데서 濟州島의 地名과 馬匹名에만 국한시켜서 論議하고자 한다.

Ⅲ. 濟州島의 地名

1. 당오름(堂山)

濟州島地方의 原始信仰形態로 남아 있는 山岳崇拜의 한 形態이다.
당산(堂山)을 '당오름'이라고 하는 것은,

① '당'은 漢字語인 '堂'에서 온 것이며,
② '오름'은 蒙古語의 借用語이다.

그 理由는,
蒙古語의 'oola'는 '山'을 뜻하기 때문이며, 原語는 ᠤᠯᠠ 이다.

따라서 '堂山'을 '당오름'이라고 한 것은

① 漢字語(堂)+蒙古語(oola)이며

2) 上揭書 p. 345를 참조.

㉡ 또한 다시 말하면,
漢字語의 音譯+蒙古語의 音譯의 結合語이다.

㉢ 또한 '당오름'은 '당+oola'인데 이'oola'에다 接尾語 '—m'이 添加되어 韓國語의 名詞처럼 되어서 '당오름'이 되었다고 하겠다.

이런 例를 濟州島에서는 찾을 수 있겠는데, 당오름(堂山)을 성산(聖山)이라고 하는 점을 보더라도 '오름'과 '山'과의 關係를 알 수 있겠다.

結局 堂山을 당오름이라고 한 것은 言語學的으로 볼 때에 北方系文化圈에 이미 古代 濟州島가 過去에 屬해 있었음 을 알 것이다.

2. 손 당

濟州島 地方에서는 원래부터 '손당'의 意味를 '神域'이나 '神聖한 祭壇'으로 여겨 왔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한개의 독립한 마을 이름으로 呼稱되고 있다.[3]」 그러면 '손당'의 意味를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① '손'은 滿洲語로 'šun'에 해당되는 말이며, 뜻은 '太陽'이라는 말이다. 말하자면 滿洲語 šun을 音寫할 때에 '슌'[4]이라고 하겠는데 이 '슌'은 單母音化現象에 의해서 '순'이 되었으며 이 '순'을 아마도 濟州島原住民들에 의해서 '손'으로 '陽性母音化'된 채로 오늘날 쓰이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滿洲語의 'šun'의 原語는 ᡧᡠᠨ 이다.

② '당'은 漢字語인 '堂'에서 音借한 것이다.
따라서 '손당'은,
㉠ 滿洲語(šun)+漢字語(堂)이며
㉡ 意味는 太陽을 崇拜하는 場所神을 모시는 地域의 뜻을 가졌다.

③ 또, 한가지 '손'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손'을, 滿洲語의 'somo'에서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손당'에서 '당'은 분명히 漢字語인데 비해서 '손'은 滿洲語系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滿洲語 'somo'는 인데 그 意味는 '天に誓ひ祈る時に立てる神杆[5]' 또는 'the votive

3) 秦聖麒. 제주도 지명의 유래집, p.64를 참조.
4) 同文類解 . 延禧大學校 東方學硏究所 國故叢刊 第九, p3.을 참조.
5) 滿和辭典

or sprit pole erected by Manchu families'[6]이다.

따라서 'somo'는 '神聖한 地域의 神杆'이라는 뜻으로 '손당'과 意味가 相通한다. 따라서 言語學的으로도 보면, 'somo'는 'som+o'이며 'o'는 接尾語이다. 그런데 Tunguse 語系統의 言語에 있어서는 'm'과 'n'을 어떤 面에서는 뚜렷한 區別을 하지 않은 듯하다. 例를 들면 M.A Castrén의 'Tungusisghen sprachlehre'에 보면,

「ⓐ w geht nach m und n in m oder n über, Z.B. Accus. oronma statt oronwa, das Rennthier (§25); Kadumni statt Kadumwi, mein Schwiegervater (§68).

ⓑ Der Accusativ nimmt folgende Endungen an:

.....

③ ma(mä) bei den auf m, n ausgehenden wörtern.」

以上에서, m과 n은 같은 條件下에서는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som'과 'son'은 같은 次元에서 말할 수 있으며 '손당'의 意味는 滿洲語의 ᡧᡠᠮᠠ 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말하자면 m, n은 語尾에 있어서는 辨別的인 것이 못된다고 하겠다).

④ 또한 '손당'을 三韓時代의 '蘇塗'와 比較할 수 있겠는데 그 이유는 蘇塗의 意味가 一般的으로 國語辭典에 나타나기는 '솟대의 起源으로 馬韓과 百濟때에 고을마다에 방울과 북을 단 큰 나무를 세우고 귀신에게 제사하던 일'

〈국어새사전〉

'제사를 지내던 곳. 三韓 때 祭政이 分離된 후 君主에 대하여 天君이란 祭主가 있었고 그 祭祀地域을 「蘇塗」라 이름. 「蘇塗」는 「솟대」의 音譯으로 「솟터」(高臺)란 뜻'

〈새 백과사전〉

'큰 農家에서 풍년을 바라 歲안에 벼씨를 담은 주머니를 달아매는 장대 蘇塗에서 起源된 것'

〈표준국어사전〉

以上과 같이 '蘇塗'에 대해서 풀이하고 있으므로 意味는 거의 비슷한 '神聖'한 地域이라는 뜻이며 이것은 濟州島地方의 '손당'과 意味的으로는 큰 相異點이 없다고 하겠다.

6) A Manchu-English Lexicon

따라서 '蘇塗'는 滿洲語의 'somo te'에서 왔을 것이다. 즉 somo te 는 '神聖한 地域에 神杆이 있는 장소'라는 뜻으로 '蘇塗'와 類似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somo te'를 言語學的으로 分析하면, 'somo'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아서 'somo'가 되었을 것이다. sot>sor>som+'o'(接尾語가 添加) 따라서 'somo'의 原始語語形態는 'sot'이다. 그러므로 'some te'는 'sot te'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하여 'sot te'에서 'sot'은 '神杆'을 意味하며 또한 '男根의 '수ㅎ'하고도 相通한다. 그리고 'te'나 'e'는 '장소를 나타내는 處所格助詞'이다.

그리하여 'sot te'는 'sote'로 變化하고 이 滿洲語가 漢字化하여 그 音譯을 한 것이 '蘇塗'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⑤ 또한 '손당,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①'손'을 '술'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 방법은 'son'을 다음과 같은 과정에서 變化되었다고 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sot> { sor~sur >som+'o' (接尾語)> somo'
       { son~sun

죽 'son'의 原始語再構語는 'sot'이며 이 'sot'는 크게 두가지 形態로 區分되어 變化되었는데 그것은 'sor~sur'系요 'son~sun'系語이다. 그리고 이것은 後代에 滿洲語의 'somo'(神杆)으로 뜻이 변하였다고 보겠다.

따라서 이 'sur'는 接尾語 'i'가 添加되어서 'suri'가 되었으며 이 'suri'는 滿洲語의 'ŠURHŪ'와 同音語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손'과 '술' 그리고 '수리'와 'ŠURHŪ'는 音聲的인 同根性을 가지고 있으며 意味도 同根語라고 보겠는데 이 滿洲語의 'ŠURHŪ' 의 意味는 '鳥(새)'이다. 따라서 그 옛날 '손당'에는 '새가 조각되어 있는 막대기가 꽂아 있는 神聖한 地域'이라는 뜻이라고도 한편으로는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손당'은 ①,②,③,④,⑤의 뜻이 結合되어 있는 '神堂'이 아니겠는가? 단지 문제는 '神堂'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神杆'을 꽂아 두었고 그 다음에는 그 것이 어떤 경계지역으로 되었는지는 아직도 궁금한 일이다.

⑥ 그리고 '손당'의 官語의 形態는 滿洲語音譯+漢字語의 音譯 結合語이다.

3. 白 主

濟州島에서는 '손당'에 '백주'와 '소천국'이라는 두 夫婦神이 있었으며 이 두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제주도 全域을 수호하였다고들 하며 또한 '백주'의 후손들은 하늘을 神의 世界로 신봉하였다. 또한 옛날옛적 제주도 原住民들은 '백주'를 '단궐'이라고 말하였다고들 한다.

여기에서 '白主(단궐)'의 意味는 다음과 같이 分析될 수 있겠고.

① '白主'가 '단궐'
'단골'
'당골'이라고 일컫고

'단궐'은 하늘(天)을 가르키는 동시에 하늘이 시키는 일을 맡아서 하는 신적 사람(神的人), 곧 〈심방〉(巫覡)을 뜻한다고도 하며,[7] 양주동은 그의 著書에서[8] ……「檀君王儉」은 「檀」訓「박달」에 의하여, 그대로 「박달님금」으로 읽음이 元亨利貞이다. 「박달임금」은 글자대로 「박달나무 아래 난 임금」의 뜻으로 볼 수 있으나 「박달」의 原義가 「붉달」「白山」이므로 「붉달님금」 곧 「붉달〔白山〕의 神君」으로 봄이 옳을 것이다. 「달」은 句麗語 「山」의 뜻」이라고 說明하면서 太白〔伯〕山을 한붉뫼—天山이라고 하였다. 崔南善은 古朝鮮 「檀君」의 본말에 대하여, 그는 遺事의 「壇君」에 특히 着眼하여 「壇君·檀君」 및 濊의 「天君」〔魏志東夷傳〕들이 모두 蒙古語 「텅거리」〔天·祭天者〕와 공통되는 「당굴」로 그의 「不咸文化論」에서 보았다. 즉 以上과 같은 學者들의 意見을 다시 설명한다면,

秦聖麒는 '白主'는 '단궐'이며, 意味는 '神的인' 또는 '巫覡(심방)'이라고 하였으며,

梁柱東은 '白山'을 '붉달'이라고 하였으니 그의 方法대로 한다면 '白主'를 '붉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崔南善은 '檀君'을 '당굴'인 '祭天者'로 보았으며,

또한 安自山은 그의 著書에서,[9]

「象徵語는 無聲의 事物은 其形狀態度를 髣髴하게 象徵하야 人聲으로써 作한 者라.

해(太陽) ——희다(白)

7) 秦聖麒. 南國의 地名由來, 濟州民俗叢書〔7〕 1975. p.10 참조.
8) 梁柱東. 國學研究論攷(서울 : 을유문화사), pp.148-150 참조.
9) 安自山. 朝鮮文學史(全) p.178.

번쩍번쩍 ——번개(電)
감는다(閉目)——감앗타(黑)
동글다(圓) ——돈다(週)
밟다(踏) ——발(足)」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安自山은 '해(太陽)'를 '희다(白)'로 보았다. 따라서 安自山은 '太陽'과 '白'을 같이 보았으며 결국 '天'과도 關係를 갖는 意味로 보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白主는 '白'은 '太陽' '天' '祭天者' '붉' '檀'과 同一元次이며, '主'는 '님금' '님' '사람' '神聖한 사람' '神的人'等과 같이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白主'는 '檀君'과 같은 存在라고 할 수 있으며 古代社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아 보았던 '祭長'의 意味라고 하겠다.

② '白主'를 比較言語學的인 面에서 볼 때에는,

崔南善이 말한, 遺事의 「壇君」 濊의 「天君」과 서로 相通하는 蒙古語의 「텅거리」와 같은 次元에서 본 것은 卓見이라고 할 수 있으니 比較言語學的인 面에서는 '白主'를, 蒙古語의 tenggri와 같이 볼 수 있으며, 이 tenggri는 오늘날 國語에 tegri있어서라고도 하는 점을 본다면, tenggri>tengri>tegri이와 같은 變化를 보이고 있음이니 따라서 '텅거리'가 '텅굴이' 그리고 다시 '텅굴' 그래서 이 '텅굴'이 漢字化한 것이 '檀君'이였으며 이 경우는 音借한 것이며, '白主'인 경우는 音借의 '意味化'의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리.

4. 대로동(大路洞)

濟州市 一徒一洞에 있는 곳으로 '한지끌'이라고도 하는데 言語學的으로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① '大'를 '한'이라고 하는 까닭은

㉠ 韓(大)……大舍或云韓舍, 大阿飡或云韓阿飡
(三國史記 卷38). 中世國語의 「한」과 一致한다.[10]
〈新羅語 單語의 例의 一面〉

㉡ 皆(王)……週王縣本高麗皆白縣. 이것은 夫餘의 '加'와도 一致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蒙古語의 qaγan, qan(帝), 또 한편으로는 新羅의 '翰'과 關係가 있을 것이다.[11]

10) 李基文. 國語의 形成(성남 : 大學國語 〈曉園大學 出版部〉 1985), p. 127.
11) 上揭書. p. 122.

〈高句麗語의 중요한 語彙要素의 例의 一面〉」

以上과 같은 例에서 볼 때에, '한'과 '大'와 'qaγan' 'qan'은 어떤 聯關性이 있음을 알 수 있겠다. 또한 우리는 中界國語에 잊어서도 '한범' '한아비'를 통해서 '한'은 '大'의 意味를 가지고 있었음을 익히 알고 있는 터이다. 이런 것들은 滿洲語의 影響과 蒙古語의 背景이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것이다.

例 忽은 'han'으로 '王' 또는 '大'의 意味임을 滿洲語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② 路는 우리말의 '길'인데 '구개음화현상'에 의해서 '질'로 되었으며 이 '질'에서 'ㄹ' 音이 탈락된 形이 '지'이다.

③ '洞'이 '골'이 되는 이유는,

「골(溝)

"고랑"〔畎〕이나 "걸〔溝〕"이란 이조어는 만주어의 "고루〔河身〕"와 同源語라 보이는데, 이 말의 쓰임은 퍽 고대로 소급된다.

고루 : 河身 물ᄫᅳᆯ 〈漢淸, 29c〉

闕 : 闕城郡 本闕支郡 景德王改名 今江城縣(史記, 三四, 地理一〉

屈 : 江陰縣 本高句麗 屈押縣 〈史記, 三五, 地理二〉

걸 : 걸 허로ᄆᆞᆯ 그츤 두들글 當ᄒᆞ놋다.

(決渠當斷岸)〈杜초, 七, 36〉

골고랑 경(畎)〈字會, 上, 7〉」[12]

以上의 例에서 보면, 溝〔골〕은 옛날에는 '물이 흘러가는 곳' 또는 '물이 고여 있는 도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意味論的으로 보면 바로 이곳에 오늘날 '동네'형식의 마을이 生成되었을 것이리라. 그리고 李基文은 忽(城)에 대해서

「中世國語의 '골'(谷·洞)과 比較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滿洲語 holo(谷)參考」[13]

라고 하였으니 '골(溝)'과 '골(谷·洞)'은 같은 意味論的인 性格을 가졌다고 볼 수 있으니 그러한 같은 例를 들면,

「高句麗의 '谷'을 意味하는 單語는 '呑·旦·頓'으로 表記되었다. 그런데 前述

12) 劉昌惇. 語彙史硏究(서울 : 宣明文化社, 1971), p. 98.

한 朝鮮館譯語는 '村'을 意味하는 單語로서 '吞'을 들고 있다.

'谷'과 '村'은 意味論的으로 관계가 깊으므로, 우리는 적어도 15世紀 初葉까지는 高句麗語系統의 '돈, 또는 '돈'이 使用되었음을 確認한다.」[14]

以上의 例에서 우리는 滿洲語의 holo 와 谷과 洞은 같은 同意語이며 意味論的인 次元에서도 같이 볼 수 있고 따라서 洞과 谷(골)의 경음화인 '꼴'은 같다고 보겠다.

④ 따라서 '大路洞'을 '한지꼴'이라고 함은 '한+지+꼴'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을 分析하면, 滿洲語意味化+한글의 구개음화+滿洲語의 意味化의 결과라고 하겠다.

5. 상교동(上校洞)

濟州市 一徒一洞에 있는 곳으로 '웃향교골' 또는 '웃생기꼴'이라고도 하는데 言語學的으로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① '上'을 '웃'이라고 하는 까닭은 蒙古語의 影響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蒙古語의 ündor 는 '上' '높이'라는 뜻이다. 이 'ündor'의 言語學的 變遷過程은 다음과 같다.

① ② ③ ④ ⑤
ut> un+d> und> und+or> ündor

① 'ündor'를 原始語再構하였을 때에 'ut'가 되리라고 본다.

② 이 'ut'는 t>n의 現象에 의해서[15] 'un'이 되었으며 거기에다 接尾語 'd'가 添加되어서

13) 李基文. 前揭書, p. 122.

14) 李基文. 前揭書, pp. 131-132.

15) 여기에 대한 論文은 徐廷範의 論文에 要約되었는데 그 論著名은 다음과 같다.
① 原始國語 再構를 위한 韓日兩國語의 共通祖語研究(慶熙語文學 6집. 1983)
② 國語의 祖語研究(語文研究 43. 1984)
③ 國語의 語源研究(박병채 환갑기념논문. 1985)
④ 數詞의 祖語研究(語文論叢. 慶熙大學校, 1985)
⑤ 祖語 再構와 語源研究(藝術界. 1985. 12月號~1986. 3月號까지) 等 多數論文에 '韓國語의 原始語 再構'에 對해서 徐廷範은 論하고 있음.

③ 'und'가 되었다(하나의 實辭 單語가 되었다).
④ 'und'에 다가 다시 接尾語 'or'가 添加되었고 陰性母音化現象에 의해서 'ündor'가 되어서 결국
⑤ ündor가 되었다.

以上의 例에서 우리는 'ündor'의 原始語形態가 'ut'이며 이 'ut'가 '大' '上' '높은'의 意味를 가졌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梁柱東은 그의 著書에서[16]

「高句麗 名將「乙支文德」을 모두 姓「乙支」이름 「文德」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錯誤는 옛날의 名臣이 반드시 姓·名을 具有하였으리라는 생각 및 「尉遲敬德」〔唐將〕 등 「尉〔울〕遲」란 姓에의 類推로써 비롯한 것이다.……예컨댄 高朱蒙·朴赫居世 등의 「高·朴」등 姓조차 후세에 붙인 것에 불과하며……「朴堤上」도 遺事엔 「金堤上」이라고 하였으니, 「朴」〔붉〕·「金」〔금〕은 단히 범연한 族稱일 뿐 固定된 姓氏가 아니다……「乙支」는 姓이 아니요, 官職名인 것이다. 그 본말은 「읏치」, 곧 「上位者」의 뜻.……

蓋蘇文 自爲莫離支其官如唐兵部尙書兼中書令職也 〈三國史列傳九〉

其州六十, 大城置傉薩, 比都督, 餘城置處〔虎〕閭近支, 亦號道使, 比刺史 〈唐書東夷傳 高麗〉

其官名 有子賁旱支·齊旱支·謁旱支·壹告〔吉〕支 奇貝旱支 〈梁書卷五四 諸夷傳 新羅〉

百濟王 姓夫餘氏, 號於羅瑕, 民號鞬吉支 夏言並王也 〈周書 異域傳 百濟〉

.....

따라서 「乙支」는 「읏치」 곧 句麗史의 「大人」이요, 句麗 官名 左引 「優台〔音「치」〕·烏拙·鬱折」 등이 모두 동일한 「읏치」의 借字에 불의한다. 「읏치」(乙支)는 「日本書紀」엔 「乙相」이라 적었다.」

以上과 같이 說明하였는데 여기에서 「읏」은 「乙支」며 「上位」「大」를 意味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梁柱東은 蒙古語의 'ündor'와 '읏'과의 關係는 언급하지 못하였다.

② '校'가 '향교' '생기'라고 함은 과거에 그 곳에는 鄕校가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으며

16) 梁柱東. 前揭書, pp. 171-173.

③ '洞'을 '꼴'이라고 함은 '大路洞'의 '洞'의 說明方法과 同一하다.

④ 결국 '上校洞'을 '웃향교꼴' '웃생기꼴'이라고 함은 言語學的인 결과를 놓고 보면, '古代 蒙古共通祖語(웃)+漢字語(향교)+꼴(滿洲語)의 結合語의 결과라고 보겠다.

6. 하교동(下校洞)

濟州市 一徒一洞에 있는 곳으로 一名 '알생기꼴'이라고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하(下)'를 '알'이라고 하는 것은 '알'은 '아+ㄹ'이며 다시 이것은 '아래(下)'의 축약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면 아래가 '下'인 이유는 그 語彙가 Ural語的인 要素이기 때문이다. 그 例를 다음에서 보자.[17]

ex) fi *ala* area, territory; space'; *ala-*, *ali-* 'sub-, lower'; *alla* (<**alna*) (being) under'; *alta* 'from beneath (an object)'; *alas*, *ales* 'down'/lp *-vuolle-* 'that which is beneath,' *vuollë-* 'lower, under-, sub-'; *vuollen* 'underneath'; *vuoʃltĕ* 'under; from beneath'/md *alo* 'underneath, under'; *aldo* 'up from underneath, under'/ch *ül-*, *ülə-* 'that which is beneath, sub-'; *ülnə* 'underneath, (being) under'/vty *ul* 'underpart, lower space, that which is beneath'; *ulyn* 'under, beneath'; *ullań* '(going) underneath'/zr *-ul* 'space under something,' *ul-* 'aub-, lower'; *ulyn* ('being) under'; *ulyś* 'from a low place'/[? vg *jaloh*, *jalq*, N *jolili* 'lower, sub-, under-'; N *jolən* '(being) under'; N *joləl* from the underside]/os *yl*, S *it* 'lower, sub-; lower part'/hu *al*, *alj* (*-j* comes from the Px3sg), *al-* sub-; *alatt* '(being) under'; *alól*, *alúl*, *alul* '(from) beneath'/yr *ŋyl* 'floor, ground, base'; *ŋylna* 'below, underneath'; *ŋyld* 'from below'/tv *ŋilea-* 'that which is below'; *ŋileanu* '(being) under'; *ŋileada* 'from below'; *ŋilinu* 'below, underneath'; *ŋilida* 'from below'/ynH *iðo*, B *iro* 'ground'; *iðone* ('being) under'; *iðoro* 'from below'/sk *yl* 'ground, base'; *yl(o)gan* 'from below'; *yllä* 'downward'/km *ilgän* 'below'; C *ilde*, D *jildə* 'downward.'— Counterparts in Yukagir, Turkic, and Korean.

以上의 例에서 보면, '下(아래)'의 意味로 'ala-, ali-'(Fin語) 또는 'vuolle-'

17) Björn Collinder. An introduction to the Uralic Languages (Los Angel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5), p. 136.

(Lapp語) 等이 있다. 따라서 濟州島地方의 '하(下)의 '알'은 바로 Ural語를 그 근원으로 하고 있음을 알 것이다.

② '校'를 '생기'라고 함은 (E)의 경우와 같으며,

③ '洞'을 '꼴'이라 함도 (E)의 경우와 同一하다.

④ 따라서 '하교동(下校洞)'을 '알생기꼴'이라고 함은 言語學的인 결과를 놓고 볼 때, 'Ural語(알)+漢字音의 구개음화(생기)+滿洲語(꼴)'의 結合語의 결과이다.

7. 한두기(漢頭)

濟州市 龍潭二洞에 있는 곳으로 一名 '한두기'라고도 칭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漢'을 '한'으로 表記함은 漢字語의 音寫를 그대로 표기한 것이며,

② '頭'를 '두기'라고 함은 蒙古語의 影響에서 온 듯하다. 그 이유는 蒙古語에서 '頭(머리)'의 뜻으로 'tolog'ai'라는 語彙가 있는데 이 'tolog'ai' 는 그 語根을 밝혀 본다면 다음과 같다.

이 'tolog'ai'는 'tol+ogai'로 分析할 수 있으며 'tol'은 'tot'에서 變化되었다고 보겠다. 따라서 'ogai'는 接尾語이며 'tot'는 'tol'의 原始語語形態라고 하겠다.

따라서 變遷過程은, 'tot>tol~tor>tol+o+gai'라고 하겠다. 따라서 'tolog'a...'와 '두기'와의 關係를 본다면 'tolog'ai'가 단지 '平音化現象'에 의해서 t>d가 되었다고 보겠다.

③ 결국 '漢頭'가 '한두기'로 된 이유는, '漢字語(한)+蒙古語(두기)'의 結合語라고 보겠다.

8. 도련리(道連里)

濟州市 道連 1洞에 있는 곳으로 一名 '도련드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道'가 '도'가 된 것은 漢字音 '道'의 音譯이고

② '連'이 '련'으로 된 것도 漢字音 '連'의 音譯이다.

③ '里'가 '드르'인 이유는 蒙古語의 影響이라고 하겠으니 蒙古語에서 '들(field)'의 意味로 'tariyalang'이 있는데 바로 이 'tariyalang'과 '드르'와의 關係는 매우 밀접하다. 'tariyalang'을 言語學的으로 分析하면 'tari+yalang'이라고 보겠으며 '-yalang'을 '複合接尾語'이다.

따라서 'tariyalang' 을 原始語 再構를 해 볼 때에 그 原始語語形態는 'tat'였을 可能性이 크다. 이 'tat'는 言語의 變遷에 의해서, tat>tar+i>tari+yal+ang>tariyalang으로 되었다고 보겠다. 따라서 'tar'와 'tur'(里, 曠野)은 同系語라고 보겠다. 따라서 '里'를 '드르'라고 함은 蒙古語의 影響이라고 하겠다.

④ 결국 '도련리'(道連里)를 '도련드르'라고 함은 言語學的인 견지에서 보면, '漢字語(도)+漢字語(련)+蒙古語(드르)'의 結合語이다.

9. 벌랑동(伐浪洞)

濟州市 三陽三洞에 있는 곳으로 一名 '벌랑ᄇᆞ랑' 또는 '벌랑버렁'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① '伐'이 '벌'인 것은 漢字音 '伐'의 音譯이며,

② '浪'이 '랑'이 된 것도 漢字音 '浪'의 音譯이다.

③ '洞'이 'ᄇᆞ랑' 또는 '버렁'이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ᄇᆞ랑' '버렁'은 滿洲語의 'Berten'과 關聯을 갖은 듯하다.

이 'Berten'의 滿洲語의 意味는 '진흙' '더러움' '오물' '쓰레기 더미'인데 아마도 그 옛날 이 바닷가 근처에 '조개무덤'이나 많은 '해산물더미'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따라서 이 'Berten' 과 'ᄇᆞ랑' '버렁'과의 關係는 매우 밀접하다고 하겠다.

④ 결국, '伐浪洞'을 '벌랑ᄇᆞ랑' '벌랑버렁'이라고 함은 '漢字語(벌)+漢字語(랑)+滿洲語(버렁)'이라고 하겠다.

10. 버드리—못

濟州市 회천동에 있는 곳으로 한글학회 지명사전에는 '동회천 남쪽에 있는 연못'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그러면 '버드리'라는 意味가 무엇이냐면 다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滿洲語의 'Bederembi'라는 語彙가 있는데 이 語彙의 의미는 '回(return)'이다. 이 'Bederembi' 와 '버드리'는 '同音同義語'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고 하겠고 특히 安東의 '河回' 마을도 '물이 굽어 돌아서 나오는 마을'이라고 하듯이 '버드리—못'도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연못'을 의미한다.

11. 베린 냇—도(ᄃᆞ)리 〔별도교, 법도천교, 하북교, 화북천교〕

濟州市 화북 1동에 있는 다리 이름으로 '화북천교'를 '베린냇ᄃᆞ리'라고 稱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베린'의 뜻은 滿洲語의 'berin'과 蒙古語의 'barin'의 兩意味를 가졌다고 볼 수 다시 말하면, 滿洲語의 'berin' 은 '활모양의 曲線'의 뜻이며, 蒙古語의 'barin' 은 '항구·배닿는 곳' 뜻이다. 따라서 '베린'은 '항구'라는 뜻이거나 '활모양처럼 생긴 그런 냇가'라는 뜻이라고 보겠다.

② 따라서 '베린 냇 ᄃᆞ리'는 '활모양처럼 생긴 그런 냇가 위에 있는 다리'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12. 고넹이—모르(고개)

濟州市 아라 1洞에 위치한 고개의 이름으로 마치 그 모습이 '고양이처럼 생긴 모습의 고개'라는 뜻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고넹이'는 '고양이'의 濟州島의 方言이며, 一部에서는 '꼰넹이'라고도 하고 있다.

② '모르'는 滿洲語로서 '고개'라는 뜻이며, 이 'moro'는 또한 '둥근형태'라는 뜻도 같이 갖고 있다. 따라서 濟州島에서의 '모르'와 滿洲語 'moro' 는 '同音同義語'라고 하겠다.

③ 따라서 '고넹이—모르'는 '고양이 모습처럼 생긴 둥근 형태모습의 고개'라는 의미라고 하겠다.

13. 장근이—빌레(바위)

濟州市 해안동에 있는 바위 이름으로 그 뜻은 다음과 같다.

한글학회 지명사전에는 '어시냇다리' '서북쪽에 있는 긴 너럭바위'라고

설명되어 있다.

① '빌레'가 '바위'가 되는 까닭은 '빌레'는 滿洲語로서 '바위'라는 뜻이다. 滿洲語에서는 'wehe'(滿洲文語) 'vexee'(滿洲國語)가 바로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滿洲語 'wehe' 는 濟州島의 '빌레'와 '同音同義語'이다.

② 따라서 '장근이ㅡ빌레'는 '긴 너럭바위'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Ⅳ. 濟州島의 馬匹名

1. 兒 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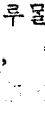
文獻上에는 '아질게몰'〔아질간〕〈蒙類. 下, 30〉으로 되어 있다. 이 語彙는 蒙古語로 '兒馬' 이다.

2. 黑 馬

文獻上에는 '가라몰'〔카라〕〈蒙類. 下, 30〉으로 되어 있다. 이 語彙는 蒙古語로 '黑馬'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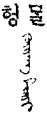
그리고 이 語彙는 지금도 濟州島 地方에서는 馬匹名으로 '가라말'이라고 使用하고 있다.

3. 紅沙馬

文獻上에는 '부루몰'〔부루루〕〈蒙類. 下, 30〉으로 되어 있다. 이 語彙는 蒙古語로 '紅沙馬'  이다.

그리고 이 語彙는 지금도 濟州島 地方에서는 馬匹名으로 '부루말'로 使用하고 있다.

4. 栗色馬

文獻上에는 '굴헝몰'〔쿠런〕〈蒙類. 上, 32〉으로 되어 있다. 이 語彙는 蒙古語로 '栗色馬'  이다.

그리고 이 語彙는 지금도 濟州島地方에서는 馬匹名으로 '구렁말'로 使用하고 있다고 하겠다.

V. 結　　語

以上과 같이 筆者는 濟州島의 沿革과 特性 그리고 濟州島의 地名과 馬匹名에 대하여 Altai語的인 입장에서 再考하여 보았다.

그 결과는 地名과 馬匹名에서 상당량의 語彙가 滿洲語, 蒙古語的인 色彩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심지어 Ural語的인 要素가 있었음도 알 수 있었다.

즉 濟州島의 地名에서 보면, 그 地名 가운데에 韓國語와 滿洲語 또는 滿洲語와 韓國語 또는 韓國語와 蒙古語 또는 Ural語와 韓國語의 複合的인 結合으로 그 地名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本稿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이런 論文이 계기가 되어서 濟州島의 言語 民俗 등의 各 分野도 北方民族史觀에 입각해서 재조명이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